

✓ 진로교육 바로 알기

자녀와 함께 커리어넷 활용하기

중·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스스로 탐색해보는 시기입니다. 학과 및 진로 정보, 진로상담뿐 아니라 자녀의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커리어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.

진로심리검사는 적성·흥미·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, 커리어넷의 ‘아로플러스’는 여러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한 개인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업이나 학과 선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(커리어넷 홈페이지 > 진로심리검사 > 진로탐색프로그램 > ‘아로플러스’)

특히 자녀가 특정 분야의 직업에 관심이 많다면, 커리어넷의 분야별 직업 정보를 활용해보세요. 그리고 ‘e-진로채널’ 등 동영상 통한 간접체험이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‘체험처’를 통해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앞서 이야기한 진로 활동이나 체험처에서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‘커리어 플래너’를 활용하면, 나만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서도 횡수에 상관없이 자녀의 진로 및 진학 설계나 학습계획 등을 커리어넷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. (커리어넷 홈페이지 > 진로상담 > ‘상담신청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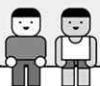
▼ 활용 사례

자녀의 진로 및 적성 파악 ⇨ ‘진로심리검사/아로플러스’ 활용 ⇨ ‘직업정보/학과정보’ 활용
⇨ 직업 동영상 ⇨ 나만의 진로 포트폴리오 ‘커리어 플래너’ 활용

※진로심리검사와 커리어넷 안내 및 활용법은 2013년 18~32호, 2014년 19~21호를 참고해주세요.

(출처: 한국직업능력개발원)

✓ 진로상담, 똑..똑..



아이가 조리과에 진학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렵다고 하네요

Q 어려서부터 요리사줄 꿈꾸던 저희 아이는 고민 끝에 ○○고등학교 조리과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막상 수업을 받아보니 칼질도 서툰고 힘이 많이 드나 봐요. 자기가 정말 요리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. 너무 성급하게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닌지 저도 자주 후회가 되고 불안해지네요.

A 요리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을 했는데, 실제로 부딪혀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.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 힘은 들겠지만, 세상의 일들이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값진 깨달음의 시간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.

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잘 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조금만 배우면 자신도 TV에 나오는 스타 셰프처럼 완벽한 요리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곤 합니다. 능력은 노력의 시간만큼 길러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보니, 초기의 지루하고 반복적인 훈련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지요. 자녀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당 분야가 자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이 훈련의 시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.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

(출처: 커리어넷(www.career.go.kr) > 진로상담 사례)

“변리사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매력적인 일이에요.” - 김주연(변리사)

■ 공부를 잘 해야겠다 싶어 학원을 관찰했어요

주연 씨는 초등학교 때, 당시 부모님 사업이 국제통화기금(IMF) 외환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. 어려운 환경 때문에 위축되기 싫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관찰하는 것이었다. 그녀는 이런 관찰을 통해, 대개 학원에서는 시험 한 달 전부터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그보다 더 일찍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. 그리고 방과 후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공부에 매진하다보니 자연히 좋은 성적이 뒤따랐다.

■ 과학과 법률을 함께 공부했어요

어릴 때 쥐를 이용해 인간의 귀를 이식해주는 재생생물학 다큐멘터리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주연 씨는 줄곧 과학에 큰 흥미가 있었다.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. 부모님이 권유한 법대를 가지는 않았지만, 생물학 전공과 법학 수업을 함께 들으며 변리사라는 직업을 일찌감치 준비했다. 그러나 시험을 위해 단순히 외우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,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다양한 생각에 빠져 들었다. 26살의 어린 나이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 다양한 수업을 들었던 것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. 변리사 시험은 과학과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고, 단순히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을 아우르는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

■ 매일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변리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

그래서인지 주연 씨는 지금도 사무실에서 특허 서류를 만들어주는 일보다는, 현장을 뛰어다니며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기술을 어떻게 특허로 만들지 생각해내는 걸 좋아하며, 그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. 변리사는 특허를 만들어주고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다. 이제 막 발명된 것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주고, 분쟁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대변해준다. 사람들은 변리사 자격증만 따면 다 되는 줄 알지만,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.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늘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바로 변리사이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 씨에게는 매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. 또한 자신이 컨설팅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 준 대상들이 그들의 꿈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. (출처: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-과학기술분야(2013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))

✓ 진로소식



커리어넷 소식, SNS로 받아보세요!

커리어넷에는 SN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.

이제는 보다 편리하게 SNS를 통해 커리어넷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세요.

◆ 페이스북

내용 : 드림레터, 진로검사, 진로 상담,
진로동영상 및 각종 진로교육자료
이용방법 : '커리어넷' 검색 → '좋아요' 클릭



<https://www.facebook.com/mycareernet>

◆ 트위터

내용 : 드림레터, 진로검사, 진로상담,
진로동영상 및 각종 진로교육자료
이용방법 : '커리어넷' 검색 → '팔로잉' 클릭



<https://twitter.com/careernetfuture>

◆ 클래스팅

이용방법 : '클래스팅' 검색 → '커리어넷진로정보',
'미래직업찾기' 검색 → '가입' 클릭

- 커리어넷진로정보

<https://www.classting.com/careernews>

내용 : 학과 및 직업정보 등의 진로정보

- 미래직업찾기

<https://www.classting.com/careernet>

내용 : 학생들의 또래상담 및 커뮤니티 성격



<커리어넷진로정보>



<미래직업찾기>